

보 도 자 료

작성기관	순천상공회의소
담당자	서호기 사무국장 (☎ 010 - 3640 - 1292)
보도일시	2022년 4월 5일 석간 이후
제 목	2/4분기 순천지역 제조업체 경기 전망, “년초와 비슷”

- 2/4분기 순천지역 경기전망 ‘96’
- 매출액(104)·설비투자(108)·공장가동여건(104) 등 세부 항목 기준치 상회
- 업체 10곳 중 5곳 … 차기 정부, “기업친화적 경영환경 조성과 노동 관련 제도 개선” 필요

순천상공회의소(회장 : 이흥우)는 최근 관내(순천, 구례, 보성) 60개 주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도 2/4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, 체감경기가 지난 분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46%에 달한다고 발표했다.

2/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는 ‘96’으로 조사되어 기준치(100)에는 미치지 못하지만, 전남지역 평균 경기전망지수인 ‘90’보다 높게 집계되었으며 매출액(104), 설비투자(108), 공장가동여건(104) 등 세부 항목 전반적으로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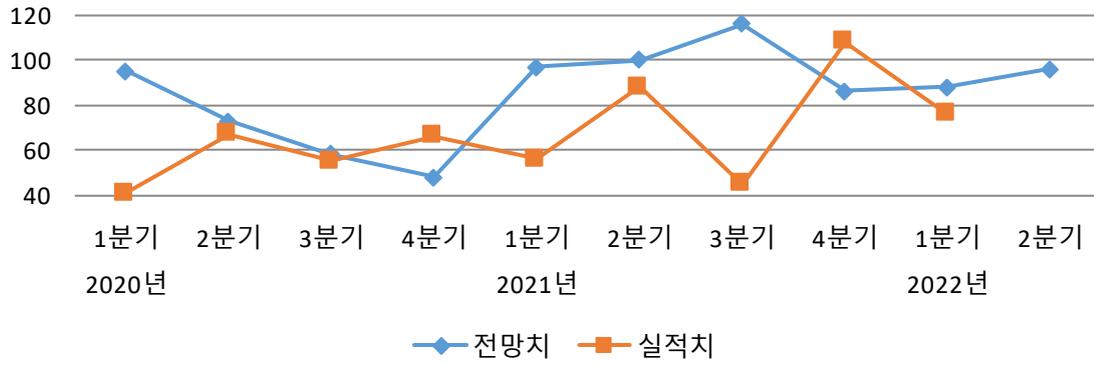
2/4분기 순천지역 제조업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로 ‘유가·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(30.6%)’가 가장 많았으며, ‘코로나 여파 지속에 따른 내수 침체(20.8%)’, ‘국내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(15.3%)’가 뒤를 이었다. ‘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한 생산 차질’과 ‘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부담 법안 시행’이 각 9.7%를 차지하였으며, ‘환율변동 심화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 증가’와 ‘국제관계 긴장 악화에 따른 수출 애로 심화’가 5.5%로 같은 응답률을 보였다.

또한,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제유가·원자재가격의 상승 등으로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, 응답 기업의 절반이 ‘영업흑자는 유지 중이나 이전보다는 규모가 감소’했다고 답했으며, 29.2%의 업체는 ‘영업적자로 반전’, 20.8%는 ‘특별한 영향 없다’고 답했다. 이에 대한 대응으로 40.5%의 기업에서 제품가격에 비용 상승분을 반영할 것’이라고 했으며, ‘생산원가 절감 노력(35.1%)’과 ‘대체 수입선 발굴(16.2%)’로 대응하겠다는 기업도 있었다.

한편, 차기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경제 현안으로는, 28.8%의 기업에서 ‘규제 완화 등 기업친화적 경영환경 조성’이라고 답했으며 23.1%는 ‘노동 관련 제도 개선’을, ‘미래산업 육성’과 ‘국제관계 대응’ 등도 각각 15.4%가 응답했다. 기타 의견으로는 ‘기존업종 고도화 촉진(7.7%)’, ‘탄소 중립 이행 활성화(5.8%)’, ‘인력 수급 개선(3.8%)’ 등이 있었다.

순천상의 이흥우 회장은 “최근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기업 친화적 경영 환경 조성에 대한 지역 경제계의 기대치가 경기 전망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”며 “다만,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, 러-우 사태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등 리스크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”이라고 덧붙였다.

경기전망지수(BSI) 추이



< 자료 : 순천상공회의소 >



< 사진 : 순천상공회의소 >